

04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

 Public Art Studio

- 목 차 -

1. 시작하며
2. 역사
3. 풍토
4. 국내 사례
5. 해외 사례
6. 바다목장
7. 독살
8. 해안사구
9. 결론

- 1 -

1. 시작하며

옛 백제가 자리잡았던 터인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당나라, 일본 등과의 무역이 활발했다. (그 흔적으로 현 지명인 唐津 (당진)을 들 수 있다.) 즉, 복잡한 해안선과 산과 강과 비옥한 평야지대의 다양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산업, 문화적으로 발달하기에 적합한 여건들이 충족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점들로 인해 문화적 꽃을 피웠던 백제시대로부터 충청남도는 해안의 항구 도시들의 번성과 수출과 무역이 활발했던 해양국가로서 자리잡았다. 그러나 산업의 이점과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차츰 해양국가로서의 존엄성 보다는 복잡다단한 시스템과 편리와 합리성을 우선하는 시대 조류에 편승함으로써 그 역사적 문화적 기상이 잊혀져 왔다.

이제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적 조류 속에서 해안, 생태적 문화를 조성 발전 시킴으로써, 그 흐름을 재조명하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

2. 역사



서산 마애 삼존불 / 국보 제84호 / 백제



금동향로 / 국보 제 287호 / 백제



보원사지 오층석탑 / 보물 제104호 /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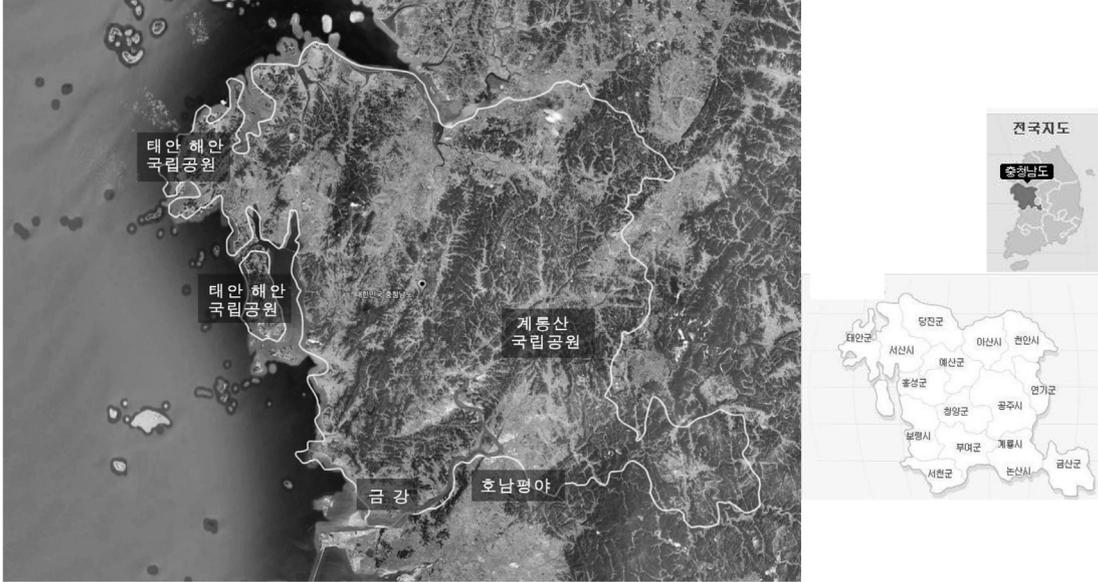


무령왕릉 / 사적 제13호 / 백제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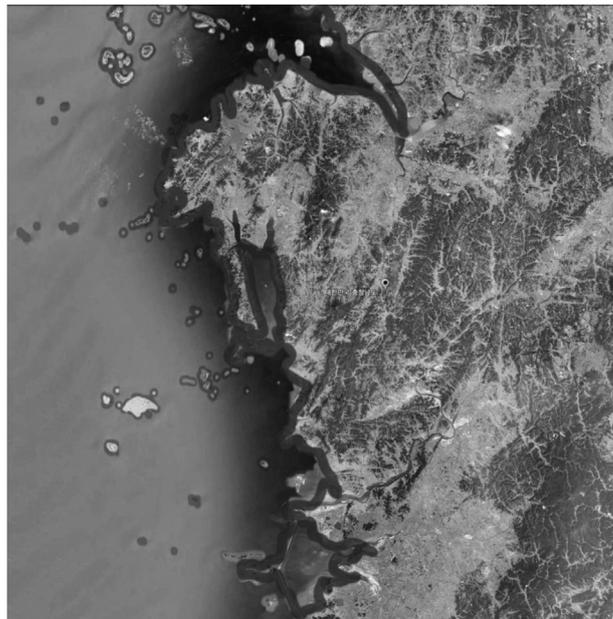
3. 풍토

- 산, 바다,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지리적 요건



- 4 -

- 충남의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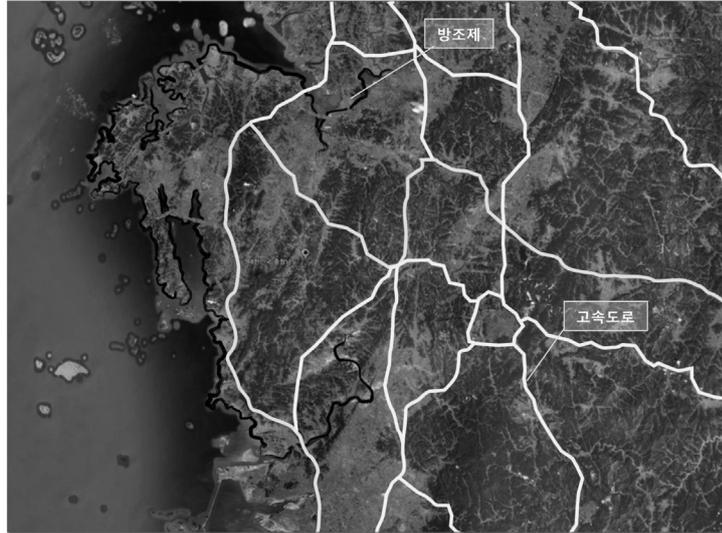
- 6 -

- 방조제

보령 방조제
삼교 방조제
대호 방조제
석문 방조제
서산 방조제
이월 방조제
아산만 방조제

-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당진 상주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서천 공주 고속도로



< 현재 충남의 문화의 현주소 >

일회성의 전시 행정적 요소가 많다.

소모적이고, 소비적이고, 대중 추수적 경향이 짙다.

지속가능적이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4. 국내 사례

- 상생의 손 / 김승국 / 20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은 1999년 12월 만든 청동 조형물로 육지에 높이 5.5m의 왼손, 120m 떨어진 바다에는 8.5m의 오른손이 마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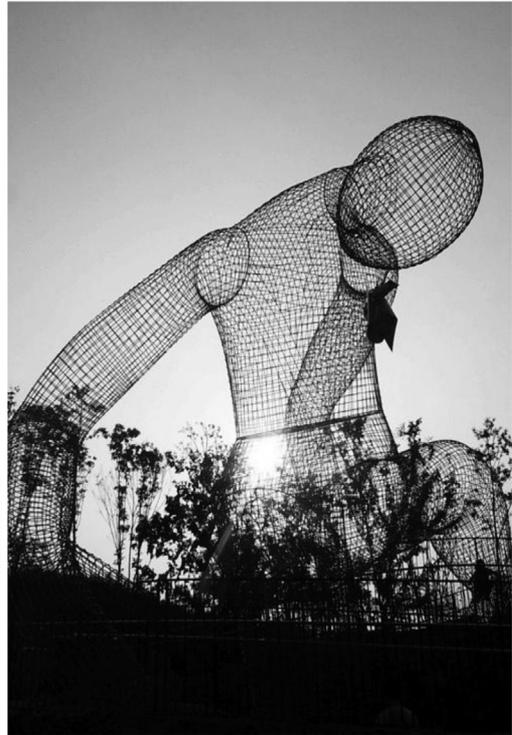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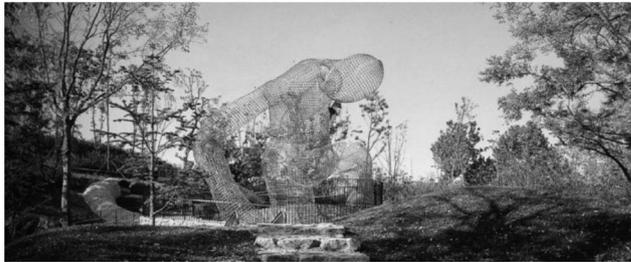
- 8 -

- 전태일 거리 / 임옥상 / 2006



- 9 -

서울 숲 무장에 놀이터
 - 상상 거인의 나라 / 임옥상 / 2006



- 10 -

위치:서울시 성동구 서울숲_면적: 826.45㎡

- 하늘을 담는 그릇 / 임옥상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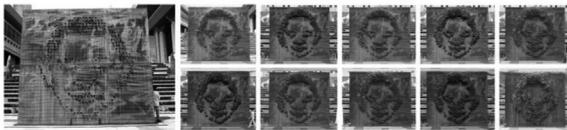
하늘공원 희망전망대 '하늘을 담는 그릇' 높이 4.6m 지름 13.5m 2009

- 11 -



- 12 -

- 광화문 농사로 / 임옥상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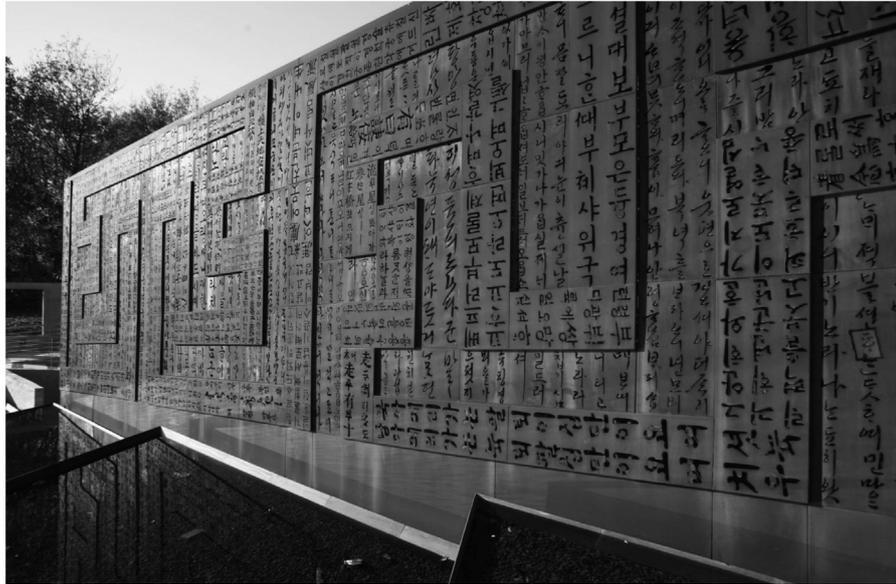


이제는 농사다 "흙의 얼굴" 2012

- 13 -

서울 숲 무장에 놀이터

- 책 테마 파크 / 임옥상 / 2005년 11월 30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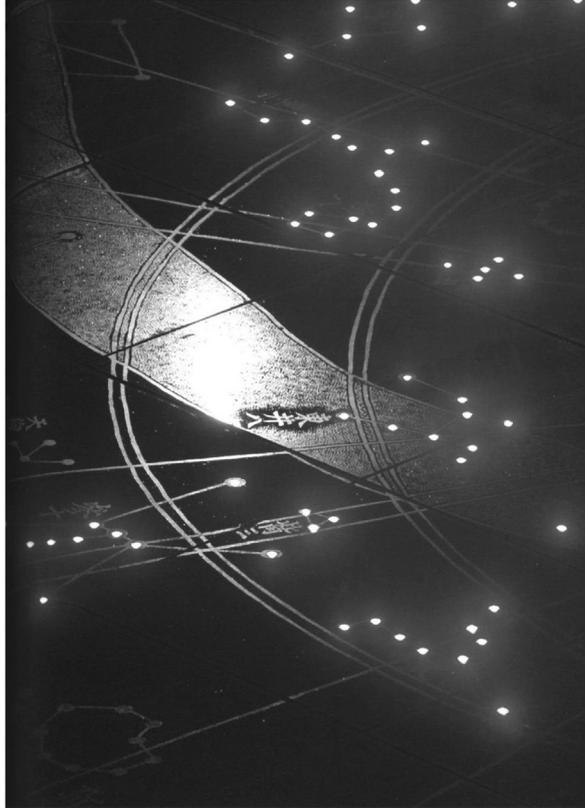


위치:성남시 분당구 울동공원 면적: 492.81㎡

- 14 -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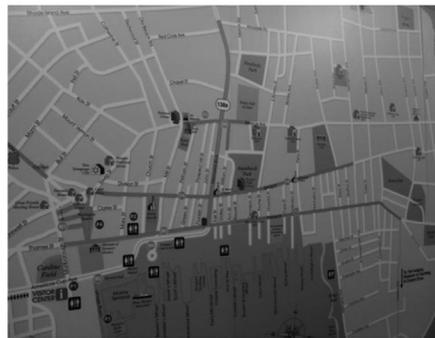


- 16 -

5. 해외 사례

- 뉴포트 (Newport)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부호 별장지대



- 맨션투어

여름 시즌에 수많은 요트들이 정박한 워터 프론트를 지나 부호들의 별장을 구경하는 관광코스



- 17 -



-클리프 워크

3.5마일의 뉴욕 해변의 바닷가 벵랑길 곳곳에서 야생화와 야생 조류를 감상하며, 브레이크스, 로즈클리프 철장 너머 부호들의 맨션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여행코스. 대서양바람을 맞으며 굽이굽이 벵랑길을 걸다가 간간이 오픈해 놓은 저택의 뒷동산이나 벵랑 끝에서 휴식을 취해도 좋다.

- 시애틀 워터 프론트 파크

시애틀 아쿠아리움 남단에 위치.
엘리트 베이, 웨스트 시애틀, 시가지 경관, 올림픽 마운틴 등을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 주변 산업 공간의 재생



- 워터 프론트 파크 / 산책로로 변한 선착장



- '안토니 곰리'와 그의 조형물

<북방의 천사> 조형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의 예

런던 동북부 300년된 게이츠 헤드라는 탄광촌은 한 때는 한창 번성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던 중, 시 의원과 당국의 결정에 의해 대형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곰리의 작품을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6억원이라는 액수로 인해 주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의 여론의 관심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설득과 소통의 과정 끝에 천사가 팔을 벌리고 있는 폭 50m, 높이 20m의 작품을 세웠다. 결국은 주민 모두가 오프닝에 참가하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파장을 일으키며 도시는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ANGEL OF THE NORTH, 1995 - 1998



ANGEL OF THE NORTH, 1995 - 1998
Steel, 22 x 54 x 2.20 m, Gateshead, England. Commissioned by Gateshead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Gateshead, England
Photograph by Colin Cuthbert, Newcastle

LAND SEA AND AIR II, 1982



LAND SEA AND AIR II, 1982
Lead, fibreglass, Land (crouching) 45 x 103 x 50, Sea (standing) 191 x 50
x 32, Air (kneeling) 118 x 69 x 52 cm

- 22 -

EXPOSURE, 2010



EXPOSURE, 2010
Galvanised steel
25.64 x 13.25 x 18.47 m
The 6th Flevoland Landscape Artwork
Permanent installation, Lelystad, The Netherlands
Photograph by Allard Rozenberg, Amsterdam

- 네덜란드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작품

- 23 -

ANOTHER PLACE, 1997



ANOTHER PLACE, 1997
Cast Iron, 100 elements, each 189 x 53 x 29 cm
Installation view, Cuxhaven, Germany
Photograph by Heilmut Ku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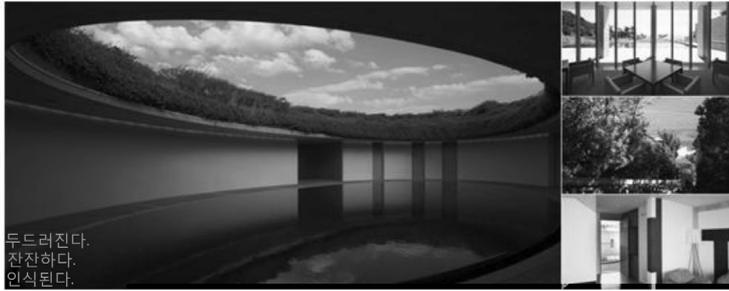
- 독일에 설치된 안토니 곰리의 작품

-안도다다오와 '나오시마'의 베넷세하우스

< 안도 다다오 > 의 건축 철학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가
그의 건축물 속의 '물'은 알고 조용하며
또한 건축물과 매우 인접하여 하나로

두드러진다.
잔잔하다.
인식된다.



- 물과 빛, 자연을 이용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베넷세 하우스



- 야요이 쿠사마의 '호박'

- 람사르 습지



<람사르 습지> 현재까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확장된 정보센터 네트워크, 방문자정보시스템, 인쇄 및 디지털 정보, 바덴해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전문적인 지침 등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자연체험학습 수준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방문자와 바덴해 모두 혜택을 입고 있다. 바덴해와 인근지역에는 총57개소의 정보 및 안내센터(네덜란드 9, 독일 4, 덴마크 6)가 위치한다. 더욱이, 바덴해 전체적으로 방문자들이 갈만한 곳에 또는 방문자들이 바덴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경로를 따라서 곳곳에 사인물과 다양한 정보망판이 설치되어 있다.



바덴해협력은 세계에서 접경지 람사르습지 관리를 위한 가장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 사례로 칭송되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이전에는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 지역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여러 압력이 현존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요소들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주요개발과 세계화 영향(항구, 선적, 에너지 부문, 외래종),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들이다. 바덴 해라는 독특한 자연자산을 위한 공동협력은 30년 전 출발 때 보다 지금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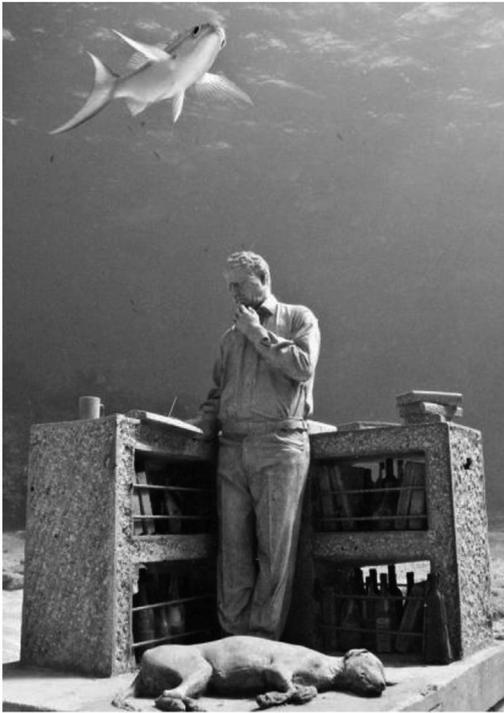
- Vadehavet (바덴해) (람사르습지 No.356)

- 제이슨 테일러의 카리브 해저박물관



<해저 조각박물관> 실물 크기의 400여점의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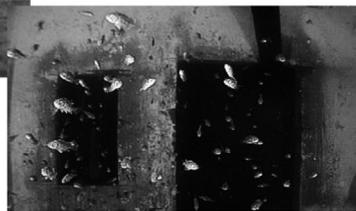
멕시코 국립해양공원의 제이미 곤잘레스 카노, 칸쿤항해협회의 로버트디아즈와 영국의 조각가 제이슨 테일러가 공동 디자인한 것으로,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라진 고대 마야의 역사를 기념한다. 박물관의 이름은 '고요한 진화'이다.



- 28 -

6. 바다목장

-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인공어초,해중림어초 등)을 시설하여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대량 방류와 인위적인 이동통제로 대상 해역의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이용관리체제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어업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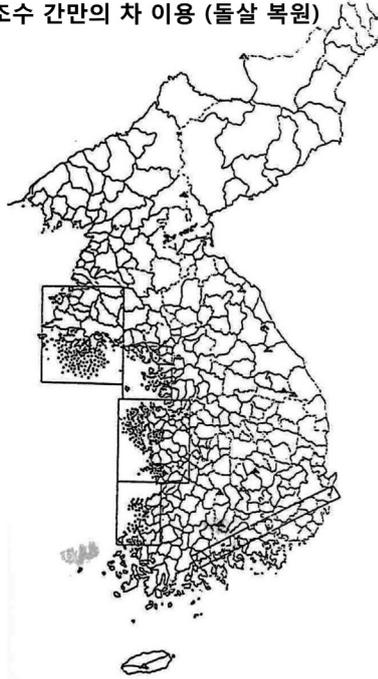


울진 앞바다; 침선되고 있는 3800t급, 81m의 퇴역 해군함정 속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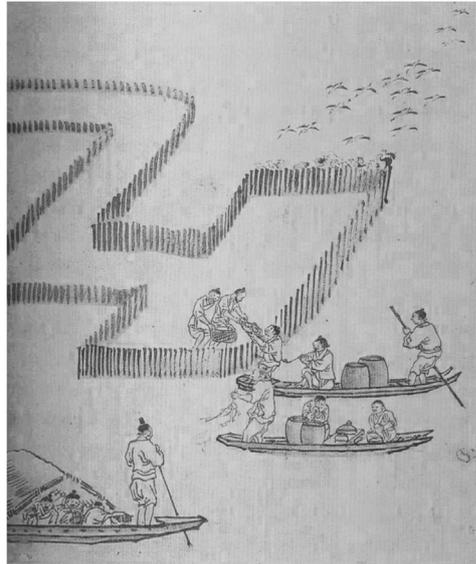
- 29 -

7. 독살

- 조수 간만의 차 이용 (돌살 복원)



서해안 어살분포도 (세종실록지리지)참조, 김일기 작성



어살도 (단원 김홍도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한반도의 돌살>

세계의 돌살이 일찍이 사라져가는 조건에서 어쩌면 한반도의 돌살은 세계 해양문화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어져 왔다. **태안반도의 돌살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한반도 최대의 돌살군이며, 여타 나라에서 이만큼 조밀하게 돌살이 밀집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최적의 조건에서 돌살들이 이어져왔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원 고갈로 서서히 퇴장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래 산업화의 결과로 거의 사라지고 겨우 몇 군데서만 생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살이 생업에서 퇴장한 역사가 불과 수십 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구술채록도 가능하여 적어도 누가 운영했던 돌살인지 규명할 수 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라, 한국의 돌살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세계 어업 문화유산인 셈이다.

하지만 육지 중심 사고에 젖은채 해양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한 현 시대의 경향들로 인해 이 소중한 유산이 다소 간과되어 왔다. 그나마 전해오던 몽산리 굴업돌살의 경우는 그것을 지켜오던 김의배옹이 2004년 사망하였다. 다행히 다시 돌살의 가치를 인식한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안면도 빛개돌살과 같은 곳은 1999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매스컴의 돌살에 관한 관심을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체험형 돌살' 프로그램을 관광 차원에서 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해양 중심 사고로 전환하고 우리의 소중한 해양문화유산을 보존 개발해야 할 때이다.

'돌살' 神이 내린 황금그물, 주강현 지음 P 52~53 참고



자은도 한운리의 돌살들, 2001.7.25 찍은 사진

8. 해안사구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遠北面) 신두리에 있는 사구.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다. 이 사구는 태안반도 북서부의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규모는 해변(海邊)을 따라 길이 약 3.4km, 너비 500m~1.3km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 지역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신두리 해안의 만입부에 있는 사빈(砂濱)의 배후를 따라 분포하는데,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신두리 해안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건조 때가 되면 넓은 모래개펄과 해변이 노출된다. 모래가 바람에 의해 개펄과 해변에서 육지로 이동되어 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해안사구는 해류에 의해 사빈으로 운반된 모래가 파랑(波浪)으로 밀려 올려지고, 그곳에서 같은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불어오는 탁월풍(卓越風)의 작용을 받아 모래가 낮은 구릉 모양으로 쌓여서 형성된 퇴적지형이다. 해안사구는 모래 공급량과 풍속풍향, 식물의 특성, 주변의 지형,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 형성과 크기가 결정된다.

해안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의 양을 조절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하며,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공급하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연출한다.

독특한 지형과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고, 모래언덕의 바람자국 등 사막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과 해당화 군락, 조류의 산란장소 등으로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높으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 32 -

9. 결론

황해는 동양의 지중해이다.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모두 우리의 황해권이며 대련, 진타오, 상하이, 제주도, 평양 등을 연결하는 해상로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충청남도가 교역의 요충이자 관광지로서의 잠재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서해와 금강(金江), 호남평야와 산지 등의 천혜의 자연 환경적 혜택 가운데 있는 충청남도는 자연적 생태적 보고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 충청남도의 천리포 수목원이 모든 물고기의 산란지라는 점을 볼 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모든 유기적 곡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서해의 해안선은 그 곡선들의 집합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 문명에 깃든 과도한 인간 중심적 사고는 강과 길을 직선화하도록 하였고, 물길을 막고 관리하면서 물을 죽이고 급기야는 물을 장애물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개발들로 인해 인간은 속도에 있어서서는 승리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발전은 기존의 것을 보존하면서 어우러짐으로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에 있어,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서해와 금강이라는 지리적 특혜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백제 전통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다. 천 년의 세월이 흐른 충청남도는 이제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건립과 함께 바야흐로 '새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시점에 놓여 있다. 이제 충청남도에게 맡겨진 과업은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곧 전통과 자연의 최적의 요소를 얼마나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 이에 있어 유독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서해와 아름다운 금강의 '물'의 자연적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는가는 다가올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33 -

